

기자가 따라가본 남북정상회담

장운희 '2018 한반도의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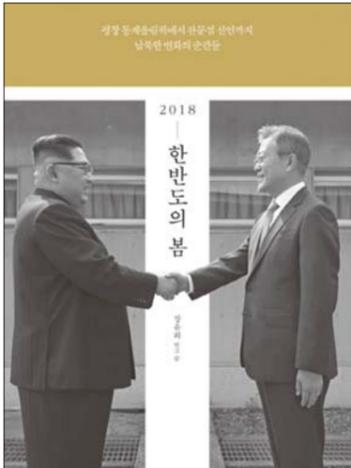
“올해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앞선 정상회담은 2차 3일 동안 열렸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하루만 진행됐다. 또 이전 정상회담이 모두 평양에서 열렸다면 이번에는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됐다. 공동경비구역 이내이긴 하지만 북한 최고 지도자가 분단 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것이다”

뉴스시 장운희 기자가 2018 한반도의 봄을 썼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을 취재한 이야기들을 담은 책이다.

1부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까지 청와대와 정부의 노력을 되짚었다. 어떻게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었는지, 과정을 살폈다.

2부는 4월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당일 일정을 따라갔다. 3부는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하기까지를 다뤘다. 4부에서는 5월26일 2차 남북정상회담과 이른날 문재인 대통령의 결과 브리핑 모습을 담았다.

부록으로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8 남북정상회담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문 등을 실었다.



연, 문재인 대통령의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문 등을 실었다.

“두 정상은 24초 간 악수를 나누고 군사분계선을 소재로 대화를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측으로 오시는데 나는

인제쯤 넘어갈 수 있었습니까?”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그럼 지금 넘어가볼까요?”라고 말하며 문 대통령의 손을 잡아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땅을 감추며 밟았다.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양측 수행원과 참석자 모두 감탄사를 터뜨리며 박수를 쳤다

“남북 단일팀을 여러 진통이 있었지만 스포츠를 매개로 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터준 의미가 크다. 올림픽이 끝나고 단일팀 선수들이 남북으로 헤어질 때 흘린 눈물은 분단 현실을 일깨우는 메시지가었다. 단일팀 경기는 이후 2018 남북정상회담 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장 기사는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로 경제 운신이 좁아졌지만 핵미사일 사정권을 넓히는 목표를 이뤘다”며 “우리나라와의 대화는 물론, 미국도 북한과의 협상이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와 경제발전 의지를 밝힌 가운데 남과 북, 미국, 중국, 국제 사회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비핵화 방법론, 체제 안전, 수교 역할 관계 등 각종 의제가 얽혀있다. 때로는 각자의 선택으로, 때로는 서로 힘을 맞춰서 한반도의 봄을 통과하고 있다” 348쪽, 2만800원, 지식의숲 /뉴스시

‘청년 인문상상’ 추진... 인문융합 프로젝트 선정 2천만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수영)과 함께 ‘인문활동가 양성·과제 사업’의 일환으로 ‘사고(思考)몽치! 청년 인문상상’(이하 청년 인문상상)을 추진한다.

‘청년 인문상상’은 청년 인문·문화 단체와 미취업 상태에 있는 지역의 청년 인문활동가가 함께 인문학적 상상을 펼쳐며 창의적 인문융합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지원하려면, 청년 중심으로 구성

되거나 청년 대상 사업을 펼치는 지역의 청년 인문·문화 단체 등이 미취업 상태의 청년(만 39세 이하) 인문활동가와 협업해야 한다. 우수 인문융합 프로젝트를 신청한 단체 중 심사를 통해 30곳을 선정하고 사업비(단체별 200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인문상상’을 통해 청년 인문활동가는 현장 경험을 쌓고 지역의 인문활동가로 성장하는 한편, 청년 인문·문화 단체는 인문 분야의 우수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인문사업에

대한 기획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청년 인문·문화 단체는 협업에 참여할 지역의 인문활동가를 발굴해 오는 27~28일까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전자우편(jmmur2018@naver.com)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격 요건과 지원 내역 등 자세한 모집 요강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누리집(www.kc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시

美 콘테나스트, 3개 잡지 매각... 작년 1352억원 적자

‘보그’ 편집장·예술감독 애너 윈투어는 퇴사 안해

패션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보그’, 100년에 걸친 역사의 ‘뉴욕커’ 등 많은 잡지들을 발간하고 있는 미국 출판기업 콘테나스트가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잡지 3개를 매각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콘테나스트는 지난해 1억 2000만달러(약 1352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상은 ‘브라이즈(Brides)’, ‘골프다이제스트’ ‘W 매거진’이라고 NYT는 전했다.

현재 14개의 잡지를 발간하고 있는 콘테나스트는 지난해 십대 겨냥 패션지인 ‘틴 보그’와 ‘셀프(Self)’의 프린트판 발간을 중단하고 직원 80명을 내보낸 바 있다. 사측은 또한 임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표상품인 ‘뉴욕커’와 ‘베니티페어’ 편집국을 뉴욕 1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잡지업계를 대표하는 콘테나스트의 이같은 구조조정 몸부림은 인터넷, 소셜미디어(SNS)시대에 프린트 미디어, 특히 잡지업계의

위기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광고회사 마그나에 따르면, 올해 미국 잡지업계의 광고매출 감소율은 두자리 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NYT는 밥 사우어버그 최고경영자(CEO)가 8일 간부 회의를 열어 모종의 결정을 통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 7월 31일 사우어버그는 성명을 통해 ‘보그’를 30여년동안 이끌어온 애너 윈투어 편집장의 퇴사설을 공식 부인했다.

그는 “애너 윈투어는 엄청나게 재능이 있는 창조적인 리더로,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우리 회사의 변혁의 미래에 없어서는 안된다. 그녀는 보그의 편집장과 콘테나스트 예술 감독으로서의 역할에 있어, 무제한적으로 나와 함께 일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뉴스시



전통문화 예술의 본고장 남원시가 알찬 휴가를 위한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을 8월 말까지 집중 운영한다.

‘전통문화의 본고장 남원으로 오세요’

남원시, 여름이 즐거운 색다른 피서여행 프로그램 마련

전통문화 예술의 본고장 남원시가 알찬 휴가를 위한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을 8월 말까지 집중 운영한다.

낮에는 지리산의 시원한 계곡과 돌레길에서 트레킹을 하고, 광한투원과 춘향테마파크에서는 판소리 배우기, 가마타기, 국궁 활쏘기 등 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으며, 밤에는 한 여름밤의 소리여행 상설공연을 감상하며 뜻 깊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춘향전의 일대기를 다섯 마당으로 조성한 춘향테마파크에서는 국악강사와 함께 하는 판소리 따라배우기, 사물놀이 체험, 전통국궁 활쏘기 등 체험과 공연이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연인을 대상으로 전통한복을 무료 대여하는 ‘꼬가웃’이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된다.

광한투원에서는 매주 화~일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 이도령 가마타기 체험과 전통의상을 입고 신랑신부가 되어 가마를 타고 광한투원 경내를 돌아보는 체험도

있다. 취타대의 상설공연은 남원예촌에서 광한투원까지 순회하며, 관광객 환영 광과레 연주와 경내 퍼레이드를 11월까지 매주 화~금 오전 11시~12시 까지 1시간 동안 만날 수 있다.

남원시민이 만든 대표공연물 신관사또 부임행사 상설공연은 여름휴가 기간인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16시~18시) 특별 운영하고 있다.

남원관광지내 사랑의 광장에서는 매년 여름휴가철 관광객 및 시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에 기여해 온 ‘한 여름밤 소리여행’이 올해에도 12개의 공연단체가 참여해 국악, 농악, 퓨전마당극, 락밴드, 통기타, 청소년 댄스, 전통무용 등 다양한 공연을 즐기도록 오는 15일까지 운영되고, 이밖에도 남원향공천문대, 백두대간 생태체험 전시관, 허브밸리 허브사이언스파크, 시립 김병중 미술관 등도 배낭을 수 없는 체험장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베스트셀러 차트, 유시민 6주연속 1위... 공지영 44위로 출발

유시민의 ‘역사의 역사’가 6주 연속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를 지켰다.

7월 25~31일 차트에서는 순위 변동이 소폭으로 있었다. 백세회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가 전 주보다 1계단 올라 2위에 랭크됐다. 지난해 2위인 정재승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의 ‘열두 발자국’은 전 주보다 1계단 떨어진 3위다.

인생 명언집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는 1계단 올라 4위가 됐다. 일본 사회과

추리소설가 야쿠마루 가쿠의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은 2계단 올라 5위에 앉았다.

하기시노 게이코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100만부 기념 특별 한정판)은 7계단 뛰어올라 12위에 올랐다. 공지영의 ‘해리’(1권)는 출간과 동시에 44위에 꽃혔다.

예스24의 7월26일~8월1일 차트에서도 ‘역사의 역사’가 6주 연속 1위를 달렸다. 2위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3위는 ‘열두 발자국’이다. /뉴스시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